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기 위한 투쟁

정 인 철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에 우리 혁명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장엄한 현실은 교육분야에서 리론과 실천을 겸비한 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시대 혁명인재육성의 절박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90(2001)년 9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교직원들과 하신 담화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나라의 위력한 과학기술인재양성기지이다》를 비롯한 여러로작과 말씀들에서 교육부문에서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학교육에서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선집》 제21권 증보판 45페이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혁명인재육성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교육부문에서 리론교육의 사명에 맞게 강의를 혁명실천과 결부된 문제를 가지고 원리적으로 진행하도록 한것이다.

강의를 통한 리론교육은 어디까지나 혁

명실천이 요구하는 문제, 실지사업과 결부된 리론문제를 푸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게 진행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5(1996)년 10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창립 50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서한에서 대학들에서 과학의 최신성과와 첨단기술자료들을 제때에 민감하게 받아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주체95(2006)년 4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창조적인 응용능력을 키워주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교육기관들에서 교육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소유하고 맡겨진 일을 능숙하게 해제낄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주체87(1998)년 한해동안에만도 40여개의 새 학과목들을 개척하고 우리 나라 현실기초자료들을 수집정리하여 교수내용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김형직사범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들에서도 경험통계학적방법과 해설식으로 전개된 교육내용들을 바로잡고 그것을 최신과학기술성과에 토대하여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투쟁을 세차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대학의 교육내용전반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최첨단과학기술분야의 기술자, 전문가육성을 위한 집적회로학과, 기계전자공학과, 생체전자공학과, 로보트공학과, 농업생물학과를 비롯한

새 학과와 학과목들이 나오고 기술부문 학과들에서 컴퓨터지원설계리론과 방법이 널리 도입되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실험실습을 강화하도록 한것이다.

실험실습을 강화하는것은 리론교육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학생들에게 쓸모있는 산 지식과 기술기능을 소유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선 대학들에서 실험실습조건을 자체의 힘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전적으로 작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과 말씀들에서 대학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실험실습설비들과 기제들을 개발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과 강령적말씀을 받들고 교육부문의 당조직들과 교육행정일군들은 대학과 학교들에 필요한 실험실습설비와 기제를 자체로 만들어 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으며 이 과정에 좋은 경험과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에서는 고심어린 탐구와 헌신적노력으로 자력갱생기지를 꾸려놓고 실험실습교육에 필요한 시약과 기구 등 수많은 제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였으며 신의주경공업대학 교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전공과목실습기지를 그쯘하게 꾸려놓고 학생들의 리론적자질과 실천실기능력을 높여 주었다.

학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자체의 힘으로 떠맡어나가는 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주체89(2000)년 3월까지 수백개

의 실험기구를 더 만들어 실험실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보장완비함으로써 전공실습을 대학실험실에서 교육강령의 요구대로 원만히 집행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학들에서 생산실습과 전공실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5(1996)년 10월 장철구평양상업대학의 실천실기교육에서 전환을 일으킬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장철구평양상업대학의 실천실기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습조건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학생들이 국제호텔과 고급식당들, 평양제1백화점을 비롯한 주요상업, 봉사기관들에 나가 실습을 원만히 하도록 하며 대학내 실습교육에 필요한 원자재와 현대적설비들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시였다.

장철구평양상업대학에 혁신을 불길을 지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6(1997)년 4월 그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들에서 실천실기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러시고 교육위원회와 대학들에서 대학졸업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전공분야의 리론과 실천능력에 대한 기준을 바로 정하고 모든 학생들이 학과, 학년별실천실기기준을 무조건 돌파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조치에 따라 대학들에서는 실천실기졸업전공시험과 학년말시험전에 실천실기시험을 통하여 실천능력평가를 엄격히 하도록 하였으며 주체88(1999)년 4월 1일 새 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의 과정안에 실천실기지도수업을 더 늘리고 그것을 무조건 집행하여나갔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룩된 성과를 제때에 일반화하기 위하여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평양기계대학에서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대학들에서 실

습조건을 충분히 보장하고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도록 행정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모든 대학들에서 졸업할 때 소유하여야 할 학생들의 실천실기기준안과 학과, 학년별 실천실기기준안이 작성되고 실천실기시험을 통하여 대학생들의 실천실기능력을 엄격히 평가하는 제도가 세워졌다. 이와 함께 온 나라의 모든 대학, 전문학교들에서 자체의 실험실습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실습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게 되었으며 대학교원들의 전반적인 실천실기능력이 눈에 띄게 높아져 2~3년 동안에 실천실기교육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대학과 각급 학교들에서 견학과 답사를 옹계 조직진행하도록 한것이다.

견학과 답사는 생동한 현실을 직접 관찰하며 사물현상을 실제적인 상태에서 답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우리 당의 혁명사상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깊이 인식시키며 자연과 사회의 사물현상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속에서 공고히 하게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대학과 각급 학교들에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를 계기와 공정에 맞게 짜고들어 진행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9(2000)년 3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자면 그에 대한 답사를 널리 조직하여야 한다고, 사람들이 백두산에도 올라가보고 백두산밀영에도 와보아야 우리 혁

명의 력사와 그 뿌리,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더 잘 알수 있고 백두의 혁명정신도 더 깊이 체득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새 세대들을 백두의 혈통과 백두의 혁명정신을 지닌 선군시대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답사하는 대렬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다.

함흥의학대학의 청년동맹원들은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뜻깊은 12월 24일을 맞으며 출발모임을 가진 다음 1 300여리를 도보로 행군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신 1월 5일 백두산밀영고향집앞에서 충정의 맹세모임을 진행하는것을 전통화해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대학과 학교들에서 신천박물관참관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비롯한 계급적원썬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결사의 각오와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7(1998)년 11월 새롭게 개건확장된 신천박물관을 몸소 찾으시여 박물관사업을 지도해주시면서 우리는 신천박물관을 통하여 인민들이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가지도록 교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주체88(1999)년 1월을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거듭 주시고 신천박물관참관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그리하여 신천박물관참관자수가 급격히 늘어나 매일 6 000~7 000명에 이르고 신문, TV를 비롯한 출판보도물들이 련일 계급교양기사들을 편집게재하는 등 온 나라에 계급교양의 일대 선풍이 일어나게 되었다.

소학교, 중학교들에서 신천박물관참관사업을 널리 조직진행하며 대학들에서도 재학기간에 신천박물관을 다 참관하도록 짜고들었다.

교육성(당시)적으로 장악된 신천박물관참관자수는 주체84(1995)년에 6만 4 337명, 주체85(1996)년에 4만 9 200여명이였다면 주체87(1998)년에는 16만 234명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그 수는 해가 갈수록 증대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유적과 명승지를 통해서도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주체90(2001)년 11월과 주체93(2004)년 12월에 칠보산유원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들에서 답사를 많이 조직하며 명승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주체97(2008)년 5월에는 임진조국전쟁시기 함경도지방에 기여든 왜적들을 격멸소탕하고 큰 승리를 거둔것을 기념하여 세운 승전비인 북관대첩비를 돌아보시면서 북관

대첩비는 사람들을 반일교양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서 의의가 크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대학들에서는 동해안지구실습에서 청진, 칠보산지구답사에 김책지구를 포함시켜 교원, 학생들이 북관대첩비를 참관하게 하였으며 사범대학 력사과목교원들도 현실체험기간에 북관대첩비를 참관하게 하였다.

함경북도안의 대학들에서는 도안의 답사와 명승지답사에 북관대첩비참관을 포함시켜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다 가서 보게 하였으며 각 도 사범대학들에서는 상식소개관에 북관대첩비를 소개하여 교직원, 학생들을 교양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됨으로써 우리의 교육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떠메고나갈 능력있는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